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관리 강화

최훈 도 행정부지사, 군산시 미원동 소재 해체공사 현장점검... 해체방법·안전관리대책 등 확인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14일 군산시 미원동 소재 해체공사 현장을 방문해 해체공사 시공과 감리의 안전관리를 위한 추진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최 부지사의 현장점검은 최근 타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체공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날 최 부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방법, 교통안전 대책 등 구조안전 계획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확인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안전사고 예방은 해체계획서에서 정한 해체방법, 해체순서 등을 준수하고, 주변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등 기본을 준수하는 데 있다"며 "건물 해체과정에서는 항상 대형붕괴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돼

있으니 철저한 현장관리와 감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 부지사는 "도는 각종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며 "해체공사 감리자 등의 모집을 도에서 직접하고, 시·군이 이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사고 없는 전북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시·군 및 전문가 합동으로 건물해체 허가 등을 받아 진행 중인 16개소 현장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구조물 해체 진행 중인 현장은 일시 중지와 함께, 안전확보 확인 후 재개토록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 부적정 현장은 긴급안전조치, 보강조치, 정밀 안전진단 등을 실시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14일 군산시 미원동 소재 해체공사 현장을 방문해 해체공사 시공과 감리의 안전관리를 위한 추진실태 등을 점검했다.

'찾아가고 싶은 33섬' 선정

행정안전부, 부안 위도 '사진찍기 좋은 섬' 군산 방축도 '걷기 좋은 섬'·선유도 '체험의 섬'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군산 선유도와 방축도, 부안 위도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섬 관광 전문가의 자문 및 섬 여행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걷기 좋은 섬, 사진찍기 좋은 섬, 이야기 섬, 쉬기 좋은 섬, 체험의 섬 등 5가지 테마로 나눠 33섬을 최종 선정했다.

'걷기 좋은 섬'은 독립문 바위, 출렁다리 등이 곳곳의 명소를 둘러보며,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방축도가 선정됐다.

'사진찍기 좋은 섬'은 고슴도치 위(蝸)도란 섬이름을 특화시켜 섬 요소요소에 고슴도치 조형물, 위도 해수욕장 주변의 수선화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이 있는 위도가 선정됐다. /유호상 기자



부안 위도 해수욕장.

'체험의 섬'은 스카이 질라인, 해수욕장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선유도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3섬은 오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통영에서 개최하는 '제2회 섬의날 행사'에서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한다.

또,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계획 대비 100.4% 신청률 기록

일명 농어민 공익수당인 전북 농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전북도는 '2021년 전북 농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결과 약 11만8천 농어가가 신청해 계획 대비 100.4%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도와 시·군은 8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농어 소득 3,700만 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9월 초 추석 전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가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기 위해서 논·밭 형상과 기능 유지관리, 농약과 비료 안전사용 기준 준수,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및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면서 지급기준에 맞는 농어가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격검증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광역 최초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도내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6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유호상 기자

중국 충칭서 '한국 속의 한국, 가장 한국적인 전북' 알려

도, 14개 시·군과 '제7회 중국서부국제관광박람회' 서 전북도 관광홍보관 운영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함께, 중국 서부 중심도시인 충칭에서 전북도 알리기에 나서서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열린 '제7회 중국서부국제관광박람회'에서 전라북도 관광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도와 14개 군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최초의 해외 현지 홍보마케팅 행사였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중국 내 30개 성, 1,00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중국 이외의 국가로는 전북도(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헝가리, 에티오피아 등이 참가했다.

도는 이번 박람회 홍보관 주제를 '한국 속의 한국, 가장 한국적인 전라북도'로 정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내세워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 시·군 대표 체험 프로그램·대표 음식, 전북의 사계절 등을 테마로 홍보관을 구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해 많은 관람객들이 홍보관을 방문, 전북여행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또한, 전시 홍보에 그치지 않고, 박람회 기간 내 체험 프로그램 운영, 퀴즈이벤트 등을 실시하며,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전북도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열린 '제7회 중국서부국제관광박람회'에서 전라북도 관광홍보관을 운영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끈 체험은 '한국 속의 한국, 가장 한국적인 전라북도'로 정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내세워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홍보관 운영 이외에도 첫 날인 지난 11일, 중국 현지 언론과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전북도 중국사무소 이지형 소장 등은 지난 11일 충칭시 언론매체 서칭미디어그룹을 방문, 총편집장 리하이조(李海洲) 및 기자 2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에 대해 홍보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북도와 14개 시·군 관광 홍보 기사가 오는 7월 초

발행될 서칭 그룹 계열사 '도시지리', '충칭여행'에 게재될 예정이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백신접종자 격리면제 협상 등 한·중간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있다"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국제관광시장 신규시장 확대 및 전북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對)중국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 주최측인 충칭시 인민정부(충칭문화관광개발위원회)로부터 '아름다운 생활용품 아이디어'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의미를 뜻있게 했다. /유호상 기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스마트팜 청년보육 경쟁률 최고

청년창업농 양성 모범적 사례로 인정받아 전북에 지원자 몰려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청년창업 농업인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4기 교육생 52명을 전국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 결과, 182명으로 타 지역보다 높은 경쟁률(3.5대1)을 보였다고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1기, 2기, 3기 운영 결과, 스마트팜에 특화된 현장 실습 중심의 첨단 시설원에 농업교육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양성에 모범적 사례로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에 지원한 교육생 182명을 상대로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해 4기 교육생 52명을 7월말까지 선발 예정이다. 개발원은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중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8월부터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취·창업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접목한 작물 재배기술, 스마트팜 운용, ICT온실관리, 경영·마케팅 등 기초부터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최대 1년 8개월)을 교육한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스마트팜 장기입대 온실(수행실적우수자, 3년) 우선 입주,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 농신보 보증비율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은 김제 백구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